

김민재 '철벽 수비' 챔스리그서도 빛났다

공중볼 5번 따내고 걷어내기 7회...스팔레티 감독 "잠재력 엄청나" 나폴리 4경기 연속 무실점 이끌며 프랑크푸르트에 1차전 2-0 완승

한국 국가대표팀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27)가 각종 수비 수치에서 팀 내 1위에 오르며 나폴리(이탈리아)의 공식전 무실점 행진을 4경기째로 늘리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김민재는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방크 파크에서 프랑크푸르트와 벌인 2022-2023시즌 유러피언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에서 폴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2-0 완승에 힘을 보탤었다.

나폴리는 공식전 4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승리를 쟁기고 있다.

이달 5일 스페치아와 정규리그 경기(3-0)를 시작으로 크레모네세전(3-0), 사수올로전(2-0)에도 실점 없이 상대를 막았다.

나폴리는 카타르 월드컵 휴식기 이후 공식전 10경기에서 단 4골만 내줬는데 이 가운데 6경기가 무실점이다.

2골 이상 내준 건 지난달 18일 크레모네세와 코파 이탈리아 16강전뿐이다.

당시 나폴리는 연장전까지 2-2로 맞서다 승부차기에서 4-5로 졌다. 불박이 선발인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는 후반 37분에만 투입됐다.

이 기간에 김민재 등 나폴리 수비진을 상대로 유효슈팅을 세 번 넘게 기록한 이탈리아 팀은 없었다. 지난달 5일 인터 밀란(1회)전을 시작으로 삼프도리아(2회), 유벤투스(2회), 크레모네세(컵대회·2회) 살레르니타나(2회), AS 로마(3회), 스페치아(3회), 크레모네세(리그·1회), 사수올로(2회) 등 대부분 팀 공격진을 쫓잡 묶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UEL) 우승팀 프랑크푸르트 역시 득점은 커녕 유효슈팅도 단 1회에 그쳤다.

이는 일본 국가대표팀의 주축 미드필더 가마다 다이치가 후반 37분 만들어낸 슈팅인데, 알렉스 메레트 골키퍼에 정면으로 향하며 사실상 골문을 위협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날도 김민재의 물샴빔없는 수비는 수치로 증명됐다. 후스코어드닷컴, 스쿼카 등 축구 통계 매체에 따르면 김민재는 공중볼 경합에서 다섯 차례 이겼고, 걷어내기도 7번을 기록했다.

태클도 5번을 성공했고, 전체 경합 상황에서는 12번이나 이겼다. 모두 양 팀 통틀어 최다치다.

김민재는 특히 상대 주포인 란달 콜로 무아니를 몸싸움으로 괴롭히며 묶어냈다.

전반 12분 페널티지역에서 속도를 붙이며 슈팅 각도를 확보하려는 무아니를 협력 수비로 잡아냈고, 후반 10분에도 센터서클에서 공을 잡은 무아니를 강하게 압박해 공을 따냈다.

결국 무아니는 3분 후 드리블 돌파 중 앙드레프 랑크 잡보 앙귀사의 발목을 밟아 퇴장당했다.

올 시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20경기 만에 10골 10도움을 작성한 무아니는 이날 단 한 개의 슈팅에 그쳤다.

여기에 김민재는 팀 내 최다인 132회의 패스를 시도하며 94.7%의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후방에서 공격 작업의 기점 역할도 충실히 해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루치아노 스파레티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에 대한 칭찬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김민재는 기술적인 선수다. 이전에는 공을 다루며 경기를 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는데, 발기술과 주력을 갖춰(개선이) 쉬웠다"며 "이제는 공을 발 앞에 두려 한다.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호평했다.

/연합뉴스



22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방크 파크에서 열린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의 2022-2023시즌 UCL 16강 1차전에서 김민재(오른쪽)가 상대 팀 주포 란달 콜로 무아니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칼 같은 전남 "정글 헤치고 승적 도전"

K리그2 내달 1일 안양과 개막전 이장관 감독, 홈 경기 승리 다짐

"정글 같은 K리그2에서 승적에 도전한다."
전남드래곤즈의 이장관 감독이 새 시즌을 앞둔 포부를 밝혔다.

전남은 오는 3월 1일 오후 1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FC안양을 상대로 K리그2 2023 개막전을 갖는다.

전남은 지난 시즌 K리그2 최하위를 기록했다. 초반 부진 속 대학 무대에서 지도력을 검증 받은 이장관 감독이 지난해 6월 지휘봉을 잡았지만 반전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아쉬운 첫 시즌을 보낸 이장관 감독은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핸드폰 볼 시간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 시즌을 위해 칼을 갈았다.

이장관 감독은 "전남은 승적이라는 큰 목표를 세웠다. 우리에겐 뛰어난 전용구장과 사랑하는 팬분들이 있다. 정글 같은 K리그2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막전을 앞둔 포부를 밝혔다.

전남의 시즌 첫 상대는 작년 K리그2 3위를 기록하며 승강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간 안양이다. 저력 있는 팀과의 대결인 만큼 첫 싸움이 중요하다.

이장관 감독은 "작년에 있었던 스토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지난 것에 너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미있는 축구로 정정당당하게 경기하겠다. 홈 개막전이나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가겠다"고 '승점 3점'을 예고했다.

안양에서 시작하는 2023시즌 전남은 홈 개막전 입장관중을 위해 아이패드, 다이스 무선청소기, 다이스 에어램, 플레이스테이션5, LG와인셀러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개막전 입장권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1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K리그2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전남 드래곤즈 이장관 감독(왼쪽)과 이호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편 2023시즌은 코로나 대응 메뉴얼에 따라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육성응원과 음식물 반입·취식이 가능하다.

2023시즌 재도약을 목표로 내세운 전남이 홈 개막전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축구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권순우, 카타르 엑손 모바일 오픈 16강 진출

권순우(68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카타르 엑손 모바일 오픈(총상금 137만 7025 달러) 단식 16강에 올랐다.

권순우는 21일(현지시간)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알달라 셀베이(276위·요르단)를 2-1(6-3 3-6 6-4)로 제압했다.

권순우가 투어 대회 단식 본선에서 이긴 것은 1월 호주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우승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회 이후 권순우는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1회전 탈락했고, 국가대표전인 데이비스컵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권순우가 이날 물리친 셀베이는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나온 세계 랭킹 200위 대 선수지만 지난주 챌린저 대회에서 준우승하는 등 최근 상승세였다. 권순우는 2회전에서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31위·스페인)와 맞대결한다.

이 대회 톱 시드는 안드레이 루블료프(5위·러시아), 2번 시드는 펠릭스 오제알리아심(9위·캐나다)이 각각 받았다.

권순우가 3회전에 진출하면 오제알리아심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권순우가 21일(현지시간)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카타르 엑손 모바일 오픈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알달라 셀베이를 상대로 백핸드를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내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2관	서치 2, 바다 탐험대 옥토포닉 육지수호 대작전: 열대우림을 지켜라!
3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4관	카운트
5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6관	서치 2
9관	카운트, TAR 타르, 교섭
7관 씨네커플	더 퍼스트 슬램덩크, 상견니, 메간 어메이징 모리스, 영웅, 살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커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

즐거움
문화산책